

- 주요 뉴스: 미국, 對인도 관세 대폭 인상할 방침 중국과의 협상 시한 연장 논의는 순조
 - 미국 6월 제조업수주, 전월비 감소, 금주 대규모 국채입찰은 수익률에 영향 예상
 - EU, 미국과 무역합의 구체화를 위한 협상 추진 對美 보복 관세는 6개월 간 유예
 - 일본, 미국에 자동차 관세 인하 촉구할 계획. 디스플레이선 완화 위해 최저임금 인상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9월 금리인하 기대 등으로 위험자산 선호 강화
 - 주가 상승[+1.5%], 달러화 약세[-0.4%], 금리 하락[-2bp]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전일 급락에 따른 빅테크 중심 반발 매수 등으로 상승
유로 Stoxx600지수는 미국 증시 영향, 은행주 강세 등으로 0.9% 상승
 - 환율: 달러화지수는 미국 주요 국채금리의 하락 등이 배경
유로화 가치는 0.1% 하락, 엔화 가치는 0.2% 상승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7월 고용둔화, 9월 금리인하 가능성 등이 반영
독일은 미국 국채시장 영향 등으로 5bp 하락

※ 뉴욕 1M NDF 증가 1383.1원(스왑포인트 감안 시 1385.4원, 0.02% 상승). 한국 CDS 하락

		8/4일	8/1일	전일대비			8/4일	8/1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6,329.9	6,238.0	+1.47%	국채 금리 10y	미국	4.19%	4.22%	-2bp
	유럽	540.60	535.79	+0.90%		독일	2.62%	2.68%	-5bp
	중국	3,583.3	3,560.0	+0.66%		영국	4.51%	4.53%	-2bp
	일본	40,291	40,800	-1.25%	CDS 5y	한국	22bp	24bp	-2bp
	한국	3,147.8	3,119.4	+0.91%		중국	44bp	45bp	-1bp
환율	달러지수	98.75	99.14	-0.39%	위험 지표	EMBI+	-	365	-
	유로화	1.1571	1.1587	-0.14%		VIX	17.52	20.38	-14.03%
	엔화	147.09	147.40	+0.21%		WTI유	66.29	67.33	-1.54%
	위안화	7.1809	7.1933	+0.17%	원자재	구리	443.8	443.6	+0.05%
	원화	1,385.2	1,401.4	+1.17%		금	3,373.6	3,363.5	+0.30%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ì.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 對인도 관세 대폭 인상할 방침. 중국과의 협상 시한 연장 논의는 순조

- 미국 트럼프는 SNS를 통해 인도가 러시아産 원유를 구매할 뿐 아니라, 구매한 원유의 상당 부분을 공개 시장에서 매도하여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다고 비난. 이를 감안하여 인도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상할 것이라고 강조. 다만, 구체적인 관세 인상 규모에 대해서는 미언급
- 시장에서는 이번 발언이 8/7일 새로운 상호관세 발효일을 앞두고 인도와의 무역협상이 진통을 겪자 트럼프가 인도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 인도 외무부는 이러한 미국의 행위는 옳지 않으며, 자국의 국익과 경제 안보를 지키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
- 한편,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 대표는 트럼프 행정부와 중국 측이 매우 긍정적인 대화의 시간을 갖고 있으며, 양국의 무역협상 시한이 연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 현재는 이와 관련된 기술적 문제를 논의 중에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도 몇 차례 대화를 나누었다고 첨언
- 아울러 중국산 희토류가 미국까지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 현재는 이를 위한 과정에서 절반 정도를 지났다고 부연
- 이 외에도 지금까지 국가별 상호관세는 합의에 의해 결정된 것이며, 현 상황에서 며칠 내에 상호관세율이 낮아질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발언. 또한 연초 이후 지금까지의 관세 수입이 1520억 달러에 이른다고 첨언. 다만 스위스, 대만 등은 관세율을 낮추기 위해 미국과의 추가 협상에 매진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미국 6월 제조업수주, 전월비 감소. 금주 대규모 국채입찰은 수익률에 영향 예상

- 6월 제조업수주는 전월비 4.8% 감소했고, 이는 항공기 부문의 주문 급감 등에 기인. 다른 한편에서는 관세 등으로 제조업 활동이 전반적으로 부진하다고 평가
- 한편 이번 주 3년물, 10년물, 30년물 중심으로 1250억달러 규모의 국채 입찰이 예정. 지난 주 금요일 금리인하 기대로 국채수익률이 큰 폭 하락했으나, 이와 같은 대규모 입찰은 국채수익률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 Morgan Stanley, 미국 주가 하락 시 매수 기회. Citi는 향후 금 가격 상승 전망

- Morgan Stanley의 마이클 윌슨 스트래티지스트는 내년에도 미국 기업들의 양호한 실적이 예상된다면서 주가가 하락하면, 이는 매수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평가. 한편 Citi는 하반기 미국 경제의 성장 둔화 및 인플레이션 압력 전망을 고려할 경우 향후 3개월 금 가격이 온스당 3,500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

■ EU, 미국과 무역합의 구체화를 위한 협상 추진. 對美 보복 관세는 6개월 간 유예

- EU 대변인은 7/27일 이루어진 미국과 EU의 관세합의는 정치적 합의인데, 이를 법적 구속력을 갖춘 온전한 합의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내부 절차를 밟아야 하며, 미국과의 추가 협상도 필요하다고 설명. 이를 감안하여 예정되어 있던 對美 보복관세도 6개월 동안 중단할 것이라고 부연
- 한편 유로존 8월 Sentix 투자자신뢰는 -3.7을 기록, 전월(4.5) 대비 하락. 이번 결과는 미국과의 무역합의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 등에 기인

■ 스위스와 남아프리카공화국, 관세율 인하를 위해 미국과의 협상을 지속

- 스위스 정부는 자국에 39%의 높은 관세를 부과한 미국에게 보다 매력적인 제안을 내놓을 준비가 되어 있으며, 이를 위해 대화를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발표. 미국과의 외교적 불화로 30%의 관세에 직면한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수출 다변화로 어려움을 극복하겠다고 강조. 다만, 미국과 관세인하를 위한 협상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첨언

■ 일본, 미국에 자동차 관세 인하 촉구할 계획. 디플레이션 완화 위해 최저임금 인상

- 이시바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관세를 인하하는 대통령령에 조기 서명하도록 촉구하겠다고 언급. 한편, 후생성의 중앙최저임금심의회는 금년 최저임금을 전년비 63엔 올린 시간당 1118엔으로 결정. 이는 금액 기준 사상 최대 규모이며, 당국의 디플레이션 완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평가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 이벤트(8/5일 현지시각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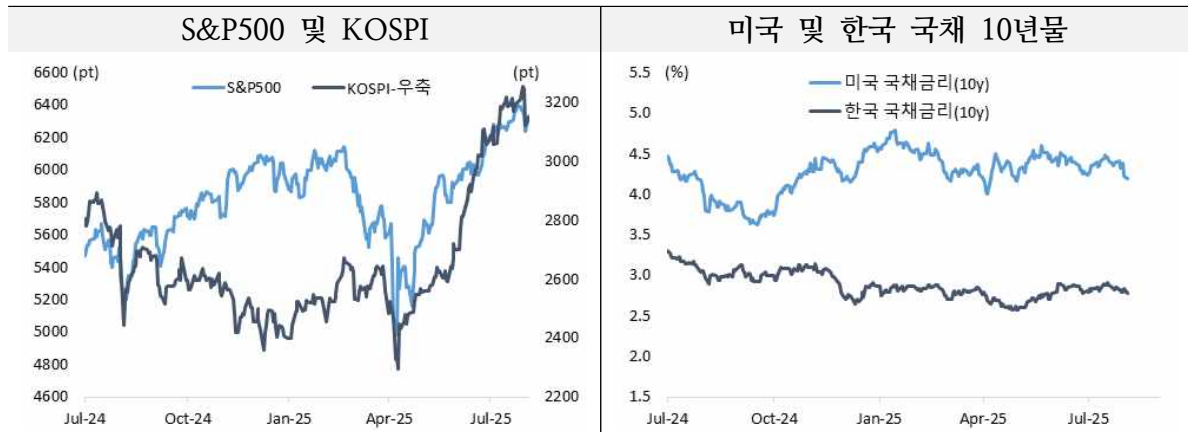
- 미국 7월 ISM 서비스 PMI, 6월 무역수지. 유로존 6월 생산자물가
- 유로존 7월 HCOB 종합 PMI, 중국 7월 차이신 서비스 PMI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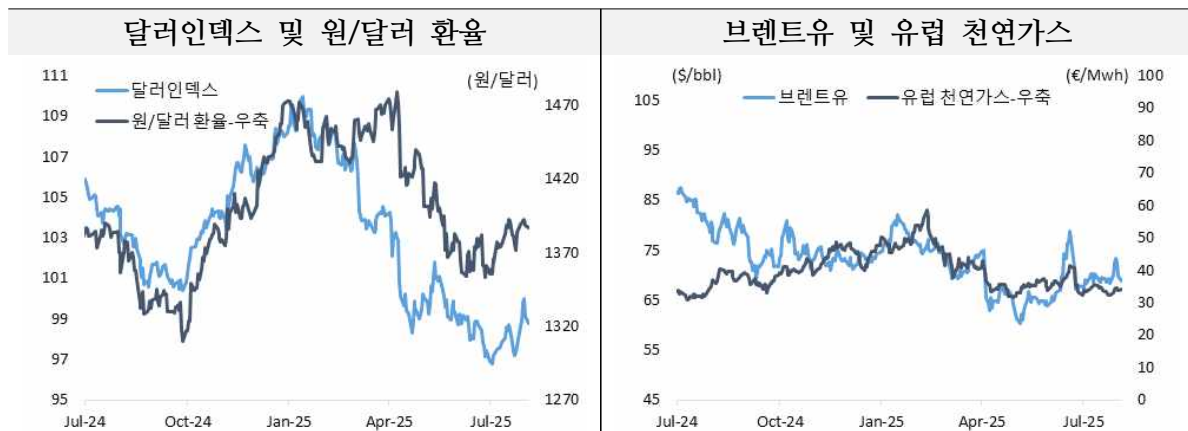
- **미국의 트럼프 관세협상, 무역전쟁은 피했지만 ‘차악’의 결과 초래 - Financial Times**
(Trump's tariffs leave us in the second worst of all worlds)
 -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협상 결과를 두고 미국 내 지지자들은 승리라 자평하고, 상대국에서는 분노 여론이 팽배. 그러나 무역에서 ‘승자-패자’는 무의미하며, 관세는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자해적 조치. EU·일본·한국 등은 보복 대신 미국과의 타협을 선택했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자국 이익에 부합. 미국 수출 시 타국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아 경쟁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
 - 반면 중국은 희토류 등을 무기로 미국의 압박에 맞섰고, 트럼프식 고립주의는 중국에 대한 국제적 연대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 이번 관세협상은 글로벌 무역전쟁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했지만, 여전히 ‘차악’에 가까운 결과
- **미국의 소비 지출 및 고용 둔화, 경기 모멘텀 약화의 현실화 가능성을 시사 - 블룸버그**
(Wavering US Consumer and Job Market Show Risks to Economy)
 - 노동시장이 양호하다는 인식과 달리 7월에 부진이 확인. 지난 3개월 고용증가율은 팬데믹 이후 최저 수준. 또한, 기업은 트럼프의 관세정책으로 투자와 채용을 미루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부채 부담에 필수품목을 제외하고 지출을 축소
 - 특히, 소비감소 추세나 기업의 소극적인 채용 움직임 등은 현재 경제 여건의 변동성으로 인한 직접적 영향보다, 향후 전망에 대한 불안 심리가 더욱 강하게 투영.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 경제성장률이 1.5%에 이르고, 내년에는 1.7%를 기록하면서, 약하지만 오름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Bloomberg 조사)
- **증시 낙관론 이끈 AI 호황, 전체 경제와는 괴리 존재한다는 점 주의할 필요 - 블룸버그**
(The Stock Market Just Got a Sobering Reality Check)
 - 최근 S&P500지수가 AI 기대 등으로 연이어 사상 최고치 경신. 또한 근래 AI 관련 자본지출의 급증이 경기성장을 유도하리라는 기대감도 팽배. 그러나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증시 과열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으며, AI 등 특정 부문의 호황이 경제 전반의 높은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는 불분명
 - 실제로 경제의 약 90%를 차지하는 ▲주택 ▲소비 ▲정부지출 등은 정체된 상태. 특히 주택경기 둔화와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 등은 소비 부진을 초래. 정책 당국이 주가의 지속적인 상승에만 몰입한 나머지 노동시장 둔화 등 실물경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신속한 대응에 나서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에 주의 요구

- **미국 관세와 증시, 1920년대와 30년대의 역사적 교훈 참고할 필요 - Financial Times**
(Lessons from the 1920s and 30s on tariffs and markets)
 - 예일대 예산연구소가 추산한 미국 실효 관세율은 18.3%로 1934년 이후 최고치. 관세의 부정적 영향(성장 둔화와 물가 상승) 불구 미국 기업실적 전망은 미국이 내수 경제 중심이고, 관세는 전가할 것이며, 닉슨 행정부 당시 관세 인상 여파가 미미했다는 이유 등으로 낙관적. 이에 주가는 관세 불확실성에도 지속적으로 상승
 - 하지만, S&P500 기업의 높은 해외 매출 비중(약 41%), 트럼프의 기업에 대한 관세 감내 압박, 과거 닉슨 관세는 10%에 불과했고 단기간 내에 종료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 오히려 고율세로 대표되는 1930년 스무트-홀리 관세와 1921년 긴급 관세법, 1922년의 포드나-맥컴퍼 관세법을 실제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
 - 스무트-홀리 관세는 미국 대공황 심화와 글로벌 무역 급감으로 이어져 글로벌 경기침체 유도. 아울러 1920년대 초 연이은 관세 인상으로 평균관세율은 38%에 육박하고 S&P500기업의 이익은 1921년에 61% 감소한 것으로 추정. 주가도 1919년 최고치 대비 44% 하락했는데, 이처럼 무역과 기업 이익의 상관관계가 높다는 사실에 주의 요구
- **미국 트럼프 감세법안, 대기업의 이익증가 가시화 및 주가 상승 기대를 유도 - WSJ**
(Cash Windfall From Trump's Tax Law Is Starting to Show Up at Big Companies)
- **미국 10년물 국채수익률, 4.5%가 '뉴노멀'이 될 가능성 - 블룸버그**
(The 10-Year Treasury at 4.5% May Be the New Normal)
- **연준, 정치적 비난과 압박에도 불구하고 독립성과 정책 신뢰를 유지 - 블룸버그**
(The Fed is under siege and It'll be just fine)
- **연준에 대한 대중의 무지와 오해, 연준의 독립성 제고에 걸림돌로 작용 - WSJ**
(Public Ignorance and Fed Independence)
- **중국 제조업체, 트럼프의 환적 관세로 생산 거점의 동남아시아 이전 재고 - Financial Times**
(Chinese manufacturers rethink south-east Asia pivot after Donald Trump's tariff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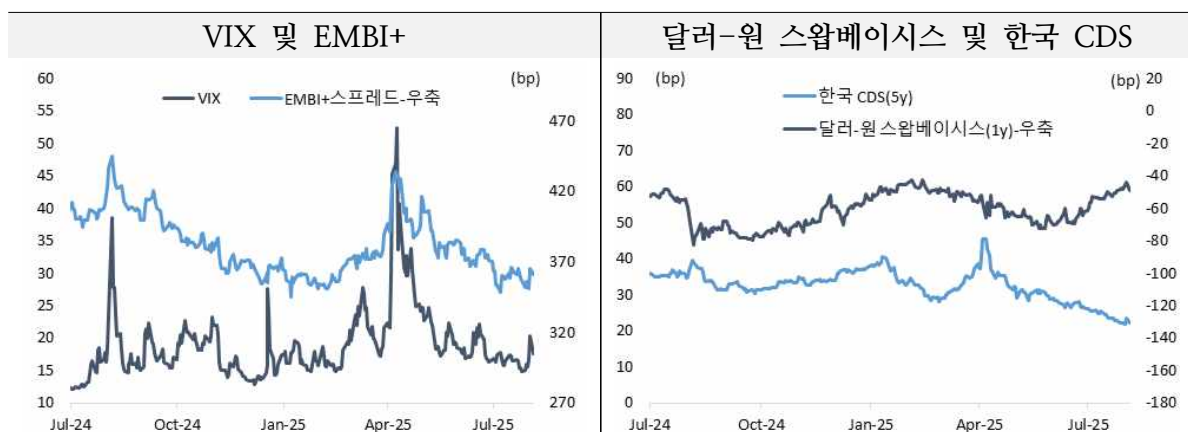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